



내가 처음 만난 선교사

부산 선교부장 제1보좌

장 재환

18년 전 내가 만났던 동반자도 없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던 한 선교사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9년 미국 알라바마주 육군 항공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저의 생활은 몹시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건너편 방에 새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일과 후 내 방에는 장교들이 자주 모여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건너 방의 새로운 장교도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 커피, 흥차도 하지 않았으며 행동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고 진지하였으며 유달리 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 친한 사이가 되어 함께 식사도 하고 누구보다도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란 소책자를 나에게 주면서 자기는 물론 교회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물론 교회가 무언지 요셉 스미스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아내가 보내준 샴쌍벌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늑아서 지금은 입지 않으나 보관하고 있음) 그는 교회가 참되다거나 개종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헤어진 후 나는 그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부산 어느 병원 대기실에서 두 젊은 외국인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

음을 보고 혹시 도울 것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물론 교회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동반자 없는 선교사와 헤어진 지 4년 후의 일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4년 전에 동반자 없는 선교사가 뿌려 놓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희와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 들여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4) 라는 말씀은 “행함”을 강조한 것이며 생명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이시며 선견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의 생활은 “행함”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집에 계실 때에는 와드에 참석하여 성찬식에서 말씀하시고, 가정을 방문하시며 병자와 불우한 이웃 위안하시며 집 뜰에는 과수를 가꾸시고 가정 방문 교사를 맞아들이십니다.

그의 자매님께서서는 와드 상호부조회를 가르치십니다. 연료 파동이 왔을 때 대관장님 부부께서는 보행으로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대관장님 담당 가정 복음 교사는 이 세상에서 대관장님처럼 겸손하시며 진실한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산 모범인 것입니다.

동반자도 넥타이도 없던 한 형제 스콧트 티 레이맨이 보여준 모범이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대관장님의 곧 “실천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와 나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

교회 및 지역 소식

교회 스테이크 800개 돌파

지난 1월 29일자 처치 뉴스에는 1월 현재 스테이크의 수가 800개라고 발표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이 실렸다.

800번째로 조직된 스테이크는 1월 15일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스테이크에서 분할, 조직된 베라크루스 멕시코 레포마 스테이크이다.

한국 서울 스테이크는 1973년 3월 8일에 603번째의 스테이크로 조직되었다.

교회 본부 대회의 일정 변경

대관장단은 매년 봄, 가을에 갖는 교회 본부 대회(연차 대회와 반연차 대회)의 일정 변경에 관해서 발표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가졌으나 대회 일정을 단축하여 앞으로는 2일간 갖게 되었다.

신권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77년 4월 연차 대회는 4월 2일, 3일(토요일, 일요일, 4월 첫째 일요일)에 갖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복지 모임을 갖고, 오후 7시에 신권회를 갖게 됩니다. 종전에 갖던 금요일 모임 시간에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를 갖습니다.

“1977년 10월 대회는 10월 첫째 일요일로 정하여 4월 대회와 마찬가지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날짜를 정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1830년 4월 6일(교회 조직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4월 6일을 4월에 갖는 연차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던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교회의 제1차 대회는 1830년 6월 9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27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역시 페이에트에서 제2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외는 있었지만 4월과 10월에 대회를 갖도록 정해진 것은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이후부터 즉 1848년 10월 6~8일에 개최된 대회 때부터였다.

1830년 27명이 참석했던 대회는 수천 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태버나클을 메우는 큰 대회로 발전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신앙을 키워 준 신학 연구원

한국 신학 연구원 제1회 졸업생 가운데 우등으로 졸업한 민 동근 형제는 신학 연구원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그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다.

수년 전 교회에 개종한 이후 지부장과 지방부장단 보좌로 봉사해온 민 형제는 현재 한국 철학회 회장이며 충남 대학교 철학 교수이다.

그는 1972년 한국 신학 연구원 개원 이래 열심히 대학부 과정에 출석하였다.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가진 내가 신학 연구원에 나가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민 형제는 졸업을 한 지금 그의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내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에서 배운 교리는 나의 인격과 신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해 한다.

바쁜 교수 생활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에 참석한 민 형제는 어떤 일보다 신학 연구원 참석을 가장 으뜸으로 알고 일과를 보냈다.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것은 결석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신학 연구원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민 형제는 말했다.

그는 재미있는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호텔에서 도지사와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신학 연구원 강의 시간이 기억되어 식사를 끝내지도 못하고 자리를 뛰어나와 제시간 내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신학 연구원 수업을 위해서 다른 약속을 취소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 연구원에서 받은 교육이 대학에서 다른 과목을 강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신학 연구원에서 값진 진리의 말씀을 배운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한국, 일본 등지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그리고 전화중계를 통하여 대회 말씀을 듣게 되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신학 연구원 헌납식

지난 1월 28일에는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한국 신학 연구원의 건물 헌납식이 방문 총관리 역원이신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님의 감리로 신학원 강당에서 있었다.

교회 지도자와, 내외 귀빈, 많은 신학원 학생들이 참석한 건물 헌납식에서 이 호남 원장님은 간략한 보고를 통해 신학원의 발전사를 소개하였고, 이어 리차즈 장로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당인 신학 연구원이 이 땅에 왕국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신학 연구원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기도를 올렸다.



신학원 주최 민속 경연 대회

지난 1월 22일 신학 연구원은 서울 스테이크 산하 와드와 지부의 회원을 대상으로 제1회 민속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다.

웃놀이, 바둑,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의 다섯 부문에 걸쳐 치루어진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제1와드가, 준우승은 제9와드가, 응원상은 고양지부가 각각 수상하였다.

신학원을 방문 중이신 프랭크린 디 데이 박사님께서 이 대회를 참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겨운 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한 모든 사람이 우리 민속 놀이의 참맛을 직접 느끼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인천 지부 합병

지난 2월 20일 서울 선교부 산하 인천 지방부의 인천 지부, 동인천 지부, 부평 지부가 하나의 지부로 합쳐졌다.

유진 피 털 서울 선교부장의 감리로 거행된 이날의 모임에서 세 지부의 모든 역원이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허 채 형제가 지지되었다. 그의 제1보좌로는 신 종만 형제가, 제2보좌로는 배 광식 형제가 각각 지지되었다.

서울 선교부장단의 박 재암 형제는 모든 성도에게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힘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라는 권고와 충고의 말씀을 전했고, 털 선교부장은 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가족이 단합하여 가장을 섬기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세 지부의 합병으로 인천 지부는 530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지부가 되었다.



서울 스테이크 제 6 와드 대회

지난 2월 12일, 13일 양일간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에 자리잡고 있는 제6와드에서는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그의 두 보좌,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보조 조직 역원과 280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와드 대회를 가졌다.

이번 와드 대회는 6와드 건물 신축 후에 갖는 첫 와드 대회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모임에서 오 광근 감독은 1968년에 불과 24명의 적은 회원으로 발족하여 만 9년이 지난 오늘날 이와같이 성장한 모습으로 대회를 갖게 되니 감회가 크다고 말하고 그 동안의 와드 발전사를 보고하였다.

서울 제6와드는 가정 복음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와드로, 가정 복음 교사들이 자전거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걸음의 폭을 넓히라"는 권고를 실천하고 있다.

12일에 가진 청소년 활동의 밤에서는 암문의 선교 여행을 즐거리로 한 연극을 아른 신권 책임자인 구윤성 형제의 연출로 상연하여 청소년들에게 선교사업에 대한 새로운 열의와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13일에 가진 성찬식에서 스테이크 부장은 와드 대회를 계기로 선교 사업과 개인의 신앙 발전에 힘쓰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성도가 되자고 권고하였다.

영하의 추위를 무릅쓰고 받은 침례

지난 1월 15일, 군산 지부 서기 이 인기 형제의 동생 이 인기 형제가 20센티 두께로 얼어 붙은 은파호수에서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았다.

예년에 없던 추운 날인데도 이 형제를 축복하기 위해 참석한 20여 명의 성도가 둘러선 가운데 거행된 이 침례식은 뜨거운 신앙과 사랑과 우정을 각자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신학 연구원 특별 강연회

지난 1월 21일 한국 신학 연구원에서는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인 제프리 알 홀랜드 박사를 모시고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홀랜드 박사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영생을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으로 첫째, 신학 연구원에 참석하여 체계적인 복음 공부를 하고 둘째, 여기서 배운 복음 지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열심히 선교 사업에 종사하며 셋째로 신전에서 합당한 배우자와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사님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참석한 300여명의 신학원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지난 3월호에 소개된 신입 감독/지부장단 소개에서 마산 지부는 진해 지부임을 바로 잡습니다.

일문 유치원 졸업식 갖다

지난 2월 11일 서울 스테이크 제1와드 부속 유치원이 제1와드 강당에서 제10회 졸업식을 가졌다.

32명의 원아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유치원 이사장인 유진 피 톨 서울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 박재암 부선교부장 그리고 제1와드의 손 승은 감독 및 다수의 학부모와 원아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졸업식에서 새로 원장으로 부임한 황 근옥 자매님은 졸업생들에게 참다운 한국인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유진 피 톨 서울 선교부장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자고 말씀하셨다.

일문 유치원은 지난 10년 동안 2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